

재택가족기업의 가정경제기여도의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Economic Contributions of Home-based Family Businesse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김현정*

부교수 정순희**

조교수 여윤경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Doctoral Candidate : Kim, Hyun-Jung

Associate Professor : Joung, Soon-Hee

Assistant Professor : Yuh, Yoon-K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contributions of home-based family businesses. The results suggested that positive effect on direct contributions of home-based family businesses was associated with a male manager, more family members, more employees, non-family employees in the business, engaged in food and restaurant business, located in Seoul area, and higher perceived success of the business. Positive effect on indirect contributions of home-based family businesses was associated with a female manager, a child under age 6, only family members as employees, and greater initial investment in the business. Working hours 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 indirect contributions. Greater total economic contributions of the home-based family businesses was associated with a male manager, more family members, more employees, non-family employees in the business, engaged in restaurant business, located in Seoul, and higher perceived success on the business.

▲주요어(Key Words) : 재택가족기업(home-based family businesses), 직접기여(direct contributions), 간접기여(indirect contributions), 경제적 기여(economic contributions), 결정요인(determinants)

1. 서론

재택가족기업은 가족기업의 하위영역에 속하는 특수 가족기업의 한 형태로, 가족기업과 재택노동의 개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재택가족기업은 그 일에 종사하는 개개인에게 고용기회 및 화폐소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가정경제에 기여한다. 또한 가계가 주요 전통적인 소득원을 잃게 되었을 때, 가

족기업은 가족원 및 비가족원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가계소득원을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재정안정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켜줄 수 있다는 면에서 가족기업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김지희, 1999). 뿐만 아니라 화폐적 소득창출 이외에도,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병행을 통해 발생하는 간접소득과 교통비, 외식비, 피복비 등 취업관련비용의 절약 측면(Pratt, 1993; 이수진·이기영, 2001)에서 간접적으로도 기여한다.

이처럼 재택가족기업의 가정경제적 기여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재택가족기업의 경제적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 주 저 자 : 김현정 (E-mail : silvikim@hanmail.net)

** 교신저자 : 정순희 (E-mail : jsh@ewha.ac.kr)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에서 진행되었을 뿐이다. 특히, 재택 노동은 화폐적 소득창출 뿐 아니라 가정생활을 동시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소득창출 기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노동의 간접적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나 간접적 기여분까지 고려한 총체적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택가족기업의 가정경제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직접적 기여분, 간접적 기여분, 총체적 기여분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작업은 재택가족기업 경영자 및 관련 정책입안자들에게 경제적 기여분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II. 선행연구고찰

미국의 재택가족기업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재택가족기업과 재택근무자에 관한 연구자료인 NSS(Nine State Study, 9개주 가족기업조사)와 비재택가족기업까지 포함하여 가족기업을 조사한 NFBS(National Family Business Survey, 전국가족기업조사)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재택가족기업만을 따로 연구한 경우보다는 재택노동이나 가족기업연구 속에 포함되어 진행된 연구가 많아 재택노동이나 가족기업의 개념이 혼재된 선행연구도 고찰대상에 포함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정영역, 기업영역, 가정과 기업의 상호작용 영역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인구통계학적 변수

경영자의 성별에 따라 기업성공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Rowe, Haynes, & Bentley(1993)는 동일업종의 경우 미국 내에서 재택사업의 소유자가 남성인 경우 연간 수익이 \$21,298인 반면 여성인 경우 \$7,691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연간 수익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Pratt(1993)은 여성경영자의 경우 가정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남성경영자에 비해 가정노동에 소비되는 시간이 더 많아 수익률도 더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경영자의 연령과 교육수준도 연간 순소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령이 한 살 많아질 때마다 연간 소득액은 \$196씩 증가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택사업의 연간 소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we, Haynes, & Bentley, 1993).

재택가족기업의 지리적 위치 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도시지역 거주자가 시골지역 거주자보다 기업경영을 통한 매출액 및 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으며(Heck, Winter, & Stafford, 1992), 재택노동자들은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평균 19.8년 거주했으며, 조사대상자의 37.9%는 20년 이상 같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택노동자들은 높은 유동성을 보이지 않았다(Heck, Walker, & Furry, 1995).

2. 가정영역

가족원 및 자녀관련 특징은 가정영역에서의 요구수준과 이에 따른 노동시간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및 노동집중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6세 이하의 자녀유무는 재택노동자로 하여금 자녀양육에 대한 비용 및 시간을 증가시키고, 가족에 대한 요구도를 높임으로써 재택가족기업의 노동시간과 순소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Loscoco, Robinson, Hall, & Allen, 1991; Heck, 1992).

3. 기업영역

Rowe, Haynes, & Bentley(1993)는 전문직 및 전문기술업, 마케팅 및 판매업, 사무 및 관리보조업, 기술 및 운송업, 수공업 및 수공예술업, 관리업, 서비스업, 건설업 및 건설관련업, 농수산물 생산 및 판매업의 9가지의 직종으로 분류된 NSS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소득이 가장 많았던 직종은 마케팅 및 판매업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수도 기업소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의 유형과 성격 또한 연간 순소득에 영향을 미쳤다. 유급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 \$19,582인데 반해 종업원이 없는 경우는 \$9,961인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 혼자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Aldrich & Weiss, 1981).

노동시간은 기업소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eck, Stafford, Winter, & Hennon, 1993; Heck & Walker, 1993), 경영기간 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업 지속연수가 길면 사업전환 의도나 폐업의도가 적어 주관적 기업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eck, Winter, & Stafford, 1992).

4. 상호작용 영역

Haynes, Walker, Rowe, & Hong(1999)이 NFBS를 이용하여, 가족기업의 기업영역과 가정영역의 재정공유에 대해 혼합에 대해 연구한 결과, 기업과 가정영역의 재정을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가족기업도 가정자원과 기업자원이 혼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이 그대로 가정의 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정영금, 1999).

Heck과 Stafford(1999)는 가족기업에 있어 기업영역의 성공도를 기업총소득으로, 가족영역의 성공도를 가족만족도라는 종속변수로 놓고 두 개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기업 수행 방식을 만들었다. 두 개의 방식의 결과는 가족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기업이 가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suo, Fong, Yanagilda 그리고 Cabal(1999)은 가족기업의 가

족과 기업의 상호작용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가정 또는 기업만 관리하는 자와 가정과 기업 모두를 관리하는 자(dual manager)사이의 차이를 조사했다. 2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해 가족의 성공과 기업의 성공간의 관계를 밝혔는데, 가족의 성공은 기업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기업의 성공이 가족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Danes, Zuicker, Kean 그리고 Arbutnot(1999)는 성격 및 지향하는 목표가 서로 다른 기업과 가정이 공존하는 가족기업에서의 기업목표와 가족의 목표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갈등 및 긴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가족기능성(APGAR)¹⁾이 좋은 가정의 긴장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긴장수준이 높을수록 기업목표에 대한 성공도는 낮게 인식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연구문제1> 재택가족기업의 직접적 가정경제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2> 재택가족기업의 간접적 가정경제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3> 재택가족기업의 총체적 가정경제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2. 측정도구의 구성

재택가족기업의 가정경제에의 기여도는 직접적 기여분과 간접적 기여분, 그리고 직접적 기여분과 간접적 기여분의 합인 총합적 기여분으로 측정하였다. 화폐적 소득창출을 통한 직접적 기여분은 재택가족기업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사업소득으로 측정하였으며, 간접적 기여분은 재택노동으로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시간사용의 융통성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재택가족기업의 간접적 기여분은 가정노동의 병행으로 인한 소득창출이외에도, 출퇴근 관련 비용 절감을 통한 간접적 소득창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출퇴근 가족기업종사자의 취업관련 비용과 재택가족기업종사자의 취업관련비용의 차이를 계산하여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재택가족기업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재택가족기업과 비재택가족기업의 취업비용 차이는 계산할 수 없었다. 또한 재택

노동의 가장 큰 매력은 취업관련비용의 절감 측면보다는 직업노동과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Pratt, 1993), 본 연구에서는 시간사용의 융통성에 따른 가정생활병행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간접적 기여분을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재택가족기업 종사자의 활동 영역별 생활시간사용조사와 활동영역에 해당하는 시장 대체 임금률을 이용하였는데, 우선 재택가족기업 종사자들의 시간사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통계청(1999)의 생활시간 조사보고서의 분류를 근거로 활동영역별 평일(설문지 작성 전날)의 시간사용을 회상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택가족기업 종사자가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가족돌보기 등의 활동영역에 할애하는 시간을 측정 후, 활동영역에 해당하는 대체직종의 시장 임금률을 적용시켜 노동가치를 산출했다. <표 1>은 이렇게 산출된 간접적 기여분과 직접적 기여분, 이를 합한 총체적 기여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직접적 기여분과 활동영역별 생활시간과 노동가치를 통한 간접적 기여분 (단위 : 분, 원)

활동영역	남성경역자(N=66)		여성경역자(N=127)	
	하루평균 소요시간	1일 노동가치 ^a	하루평균 소요시간	1일 노동가치
식생활관리	5.7	594	68.7	5,509
의생활관리	7.1	633	33.2	2,344
청소 및 정리	12.7	1,132	32.4	2,283
주택관리	11.1	558	10.9	743
가정경영	16.1	3,524	36.2	4,247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3.7	400	17.6	2,061
초·중·고등학생 자녀 보살피기	6.7	722	16.9	1,969
기타 가족원 보살피기	2.3	355	3.0	312
간접적 기여분(1일) ^b	7,912		19,467	
가정경제 기여분 (1개월)	간접적 기여분 ^c	161,395	397,129	
	직접적 기여분 ^d	5,801,364	4,516,063	
	총체적 기여분 ^e	5,962,759	4,913,192	

a) 1일 노동가치 = 영역별 하루평균 노동시간 × 시간당 대체직종 평균임금
 b) 1일 간접적 기여분 = 각 영역별 1일 노동가치의 합산
 c) 1개월 간접적 기여분 = 1일 간접적 기여분 × 20.4일
 d) 간접적기여분측정 대상(응답자)과의 일치성을 위해 남성소유주와 여성소유주가게가 아닌 남성경역자가게와 여성경역자가게의 월사업소득액으로 측정
 e) 총체적 가정경제 기여분 = 직접적 기여분 + 간접적 기여분

1) APGAR는 Smilkstein(1978)이 고안한 가족기능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가족구성원의 적응성(adaption), 협력성(partnership), 발전성(growth), 애정성(affection), 해결성(resolution)의 5가지 측면의 기능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가족기업의 가족기능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가족기업의 긴장을 설명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ng & Stafford, 1995; Danes, Zuiker, Kean, & Arbutnot, 1999).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선정되었으며, 크게 인구통계학적 변수, 재택사업장 관련 변수, 가정경영 관련 변수, 기업경영 관련 변수, 상호작용 관련 변수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경영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이 포함되었고, 재택사업장 관련 변수로는 거주지역, 재택사업장 유형을, 가정경영 관련 변수로는 가족원수, 6세 이하 자녀 유무, 가족기능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가족기능성은 Smilkstein (1978)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Smilkstein의 측정도구는 5가지 가족기능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영역 당 5점 만점(매우 불만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총점이 5-25점까지 분포하도록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가족기능성의 정도를 5-11점을 낮은 가족기능군, 12-18점을 중간 가족기능군, 19-25점을 높은 가족기능군으로 명명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0.8028이었다.

기업경영관련 변수로는 산업의 유형, 초기투자비용, 사업지속년수, 종사자 수, 노동참여자 구성유형, 주당 노동시간, 주관적 성공도가 포함되었다. 주관적 성공도는 기업에 대한 주관적 성공도를 의미하는데, 현재 운영하는 사업을 창업하거나 매입 또는 승계할 당시의 목표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목표 실현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최하를 0점에서 20점, 최고를 180점 이상으로 한 11칸 사다리 척도를 사용하였다.

상호작용 관련 변수는 재택가족기업 경영자의 가정영역과 기업영역간의 상호작용 갈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Heck & Stafford(1999)가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가정영역과 기업영역간의 상호작용상의 역할갈등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 는 0.8154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각각에 대한 자세한 측정방법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재택가족기업의 가정경제적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구통계적 변수들, 재택사업장 관련변수, 가정경영 관련변수, 기업경영 관련변수, 상호작용관련변수 등이 직접 기여분, 간접적 기여분, 총체적 기여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종속변수인 직접적 기여분, 간접적 기여분, 총체적 기여분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간접적 기여분은 정규분포를 대체로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적 기여분과 총체적 기여분의 왜도(skewness)가 5이상이나 되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치우친 분포를 보여, 자료를 변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선형성 검증을 위해 산점도(scatter plot)를 그려본 결과 매우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 좀더 선형적으로 자료를 변형하기 위해 직접적 기여분과 총체적 기여분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표 2>참조).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을 위해 사업장소가 주거지와 동일하거나 사업장과 주거지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다른 가족원과 동거하며,

<표 2>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직접적 기여분	월사업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간접적 기여분	월가사노동가치(가사노동시간 × 시장대체임금율)
총체적 기여분	(직접적기여분 + 간접적기여분)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독립변수	
인구통계학적변수	
경영자 성별	1 = 여자, 0 = 남자
경영자 연령	
경영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1 = 중졸이하, 0 = 그 외
고졸	1 = 고졸, 0 = 그 외
전문대졸이상	1 = 전문대졸 이상, 0 = 그 외
재택사업장관련변수	
거주지역	1 = 서울, 0 = 인천·경기
재택사업장유형	1 = 주거지 사업장 분리, 0 = 주거지 사업장 미분리
가정경영관련변수	
가족원수	
6세 이하 자녀유무	1 = 있음, 0 = 없음
가족기능성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성 높음(5-25점 분포)
기업경영관련변수	
산업유형	
도소매·제조업	1 = 도소매·제조업, 0 = 그 외
서비스업	1 = 부동산·개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0 = 그 외
음식점업	1 = 음식점업, 0 = 그 외
초기투자비용	창업당시 투자비용을 2003년 9월의 화폐가치로 환산
사업지속년수	
종사자수	본인 포함하여 재택가족기업에 종사하는 총종사자수
노동참여자 구성유형	
본인혼자	1 = 본인혼자, 0 = 그 외
본인 + 가족	1 = 본인 + 가족, 0 = 그 외
본인 + 타인	1 = 본인 + 타인, 0 = 그 외
본인 + 가족 + 타인	1 = 본인 + 가족 + 타인, 0 = 그 외
주당 노동시간	재택가족기업에 투입되는 주당 노동시간
주관적 성공도	점수 높을수록 주관적 성공도 높음(1-11점 분포)
상호작용관련변수	
상호작용 갈등	점수 높을수록 상호작용갈등 높음(6-30점 분포)

가족원 중 1인 이상이 최소 주당 6시간, 또는 1년에 312시간 참여, 운영하는 기업을 재택가족기업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재택가족기업 경영자로, 부부 중 1인만 재택가족기업을 경영하면 경영자가 응답을 해야 하지만, 만약 부부가 모두 기업경영에 참여한다면 소유권의 소재여부에 상관없이 부부 중 1인이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별 층화표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조사과정의 어려움과 비용상의 문제로 인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2003년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조사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은 면접원이 조사대상자의 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질문지를 작성하는 면접타계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43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응답자들이 재정정보나 세금 등의 질문 문항에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 연구용으로만 이용된다는 사실을 몇 번씩 확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되는 질문지가 많았다. 또한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면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 20-30분간의 면접도중에도 피면접자가 바쁘다고 하면 면접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재방문을 통해 면접을 완성하였으며, 부실 응답 문항의 경우 추후 전화면접을 통해 설문을 완성하였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은 54.6%에 불과하여 235부의 질문지만이 완성되었고, 부실 기재된 42부를 제외한 193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되었다.

가정경제적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tolerance)가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조건지표(condition index)의 모든 값도 100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분석은 SPSS WIN(version 11.0)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재택가족기업 경영자의 성별은 남성이 66명(34.2%), 여성이 127명(65.8%)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4.6세로 40대를 중심으로 많이 분포(43.5%)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 가정의 가족원수는 평균 3.8명, 평균 자녀수는 1.8명으로 평균가족수 3.1명, 자녀수 1.7명인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통계청, 2000).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5가정으로 조사대상자의 18.1%에 불과했다.

거주지역은 서울에 104명(53.9%), 경기·인천지역에 94명(47.3%)이 분포하고 있으며, 재택사업장은 주거지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96가정, 주거지와 사업장이 일치하는 경우가 97가정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의 적응성(adaption), 협력성(partnership), 발전성(growth), 애정성(affection), 해결성(resolution) 등 가족생활 기능 정도를 보여주는 APGAR 측정결과를 Smilkstein(1978)의 분류기준에 따라 5-11점을 낮은 가족기능군, 12-18점을 중간 가족기능군, 19-25점을 높은 가족기능군으로 분류하였으며, 낮은 가족기능군에 속하는 경우는 1%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체의 54.3%가 높은 가족기능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택가족기업을 운영하는 가정의 가족기능성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가족기업이 종사하는 기업의 종류를 개방형으로 기입하도록 한 후, 통계청(2000)이 제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근거로 재분류한 결과, 도소매·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57.0%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업과 음식점업이 30.6%와 12.4%로 그 뒤를 이었다.

사업시작 당시의 창업비용이나 기업매입 비용을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3년 9월 가치로 환산한 초기투자비용은 평균 4,456만원으로,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가 전체 응답자의 3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업지속년수를 살펴본 결과, 평균 8.2년으로 나타났으며, 4-7년이 가장 많은 비율(35.2%)을 보임으로서, 우리나라가 IMF 등 경제적 위기를 겪을 무렵인 1998년을 전후하여 사업을 시작한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시기 조기퇴직 등 고용불안으로 인해 임금근로자가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재택가족기업 경영자로 전환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가 창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사업체에 종사하는 총직원수는 평균 2명으로 재택가족기업은 매우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종사자수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재택가족기업에 참여하는 노동참여자 구성유형을 분류한 결과, 본인+가족·친척의 유형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본인 혼자(33.7%), 본인+타인(17.1%), 본인+가족·친척+타인(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재택가족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은 매우 길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거의 절반정도(49.2%)가 일주일에 7일 모두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일 이내로 일하는 경우는 8.2%에 불과했다. 또한 주당 노동시간도 평균 73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이고, 당사자 합의 하에 주 12시간 연장이 가능한 근로기준법에 비추어볼 때, 44시간 이내로 노동하는 경우는 11.1%에 불과했으며 본인이 합의했다고 가정할 때 60시간 이내로 노동하는 경우도 23.2%에 불과했다. 81시간 노동하는 비율이 42.7%나 되었으며, 100시간 이상도 조사대상자의 11.1%(22명)나 되었다. 이처럼 재택가족기업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력을 투입하고 대신, 이를 소득으로 보상받아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택가족기업은 임금근로자가 현재의 노동시장 수급상황에서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직업형태로 볼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주관적 성공도는 현재 운영하는 사업을 창업하거나 매입 또는 승계할 당시의 목표수준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현재의 목표실현정도를 점수화한 결과, 목표수준에 도달하거나 목표수준을 초과한 경우가 20.2%를 차지하였으며, 60-80점 사이에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매우 주관적인 척도로 이 점수가 객관적 성공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현재 재택가족기업 경영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을 표현해준다고 할 수 있다.

재택가족기업의 가정영역과 기업영역간의 갈등정도를 측정한

Heck과 Stafford(1999)의 척도를 근거로 재택가족기업의 가정영역과 기업영역간의 상호작용의 갈등수준을 측정하였다. 각 1점에서 5점까지 부여된 6문항 전체의 평균은 13.4점으로 나타나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30.8²⁾로 갈등이 매우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빈도/평균	백분율/표준편차
성별		
남자	67	33.7
여자	132	66.3
연령		
20대	4	2.0
30대	55	27.6
40대	85	42.7
50대	42	21.1
60대 이상	13	6.5
평균(표준편차)	44.6(9.1)	
교육수준		
중졸이하	25	12.6
고졸	115	58.1
전문대졸	20	10.1
대졸이상	38	19.2
평균교육연수(표준편차)	12.5(2.4)	
거주지역		
서울	105	52.8
경기·인천	94	47.3
재택사업장 유형		
주거지와 사업장이 동일	100	50.3
동일 건물 내 별도 거주	99	49.7
가족원수	3.8명	0.8
자녀수	1.8명	0.75
6세 이하 자녀 유무		
있음	35	17.6
없음	164	82.4
가족기능성		
낮은기능군(5점이상-12점미만)	2	1.0
중간기능군(12점이상-19점미만)	89	44.7
높은기능군(19점이상-25점)	108	54.3
평균(표준편차)	18.2(2.7)	
재택가족기업 종사 산업유형		
도소매·제조업	110	57.0
서비스업	59	30.6
음식점업	24	12.4

2) 100점 환산법 : (13.4-6)/(30-6)×100

변 수	빈도/평균	백분율/표준편차	
초기투자비용	2,000만원 미만	48	24.1
(2003년가치로 환산) 2,000 - 4,000만원		60	30.2
4,000 - 6,000만원		31	15.6
6,000 - 8,000만원		23	11.6
8,000만원 이상		31	15.6
평균(표준편차)		4,456.0(4,080.0)	
사업지속년수	3년 이내	52	26.1
4-7년 이내		72	36.2
8-15년 이내		45	22.6
16년 이상		30	15.1
평균(표준편차)		8.3(7.2)	
종사자수(본인포함)	1인	68	34.2
2인		99	49.7
3인		19	9.5
4인 이상		13	6.5
평균(표준편차)		2.0명(1.6)	
노동참여지구성유형	본인혼자	69	34.7
본인+가족·친족		87	43.7
본인+비가족원		34	17.1
본인+가족·친족+비가족원		9	4.5
주당노동시간	44시간 이내	22	11.1
45-60시간 이내		46	23.2
61-80시간 이내		48	24.2
81시간 이상		82	41.4
평균(표준편차)		72.5(24.4)	
주관적 성공도	60점 미만	42	21.1
60이상-80미만		69	34.7
80이상-100미만		46	23.1
100(목표수준)		15	7.5
100초과		27	13.6
상호작용갈등		13.4	3.6

2. 재택가족기업의 가정경제 기여분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재택가족기업이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직접적 기여분, 간접적 기여분, 총체적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경영자 성별, 거주지역, 가족원수, 산업유형, 종사자수, 노동참여지구성유형, 주관적 성공도가 화폐소득 창출을 통한 직접적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자 성별, 6세

이하 자녀유무, 초기투자비용, 노동참여자 구성유형, 주당노동시간이 가사노동병행으로 인한 간접적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 기여분과 간접적 기여분을 합한 총체적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영자 성별, 거주지역, 가족원수, 산업유형, 종사자수, 노동참여자 구성유형, 주관적 성공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경영자가 남성경영자에 비해 직접적 기여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Rowe, Haynes, & Bentley(1993), Heck과 Walker(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총체적 기여분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 간접적 기여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직접적 기여분에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덜 영향을 미쳤다. 즉, 여성경영자의 경우 남성경영자보다 직접적 화폐소득은 덜 창출하지만 가정노동의 병행으로 인한 간접적 기여분의 창출분이 커, 그 영향력의 상쇄효과로 인해 가정경제에의 총체적 기여분에는 영향력을 덜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교육수준이 가정경제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흥미 있는 결과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Rowe, Haynes, & Bentley(1993)의 연구에서도 사업주의 교육수준은 가족기업(재택, 비재택포함)의 소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택가족기업 경영자의 교육수준이 화폐소득 창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는 본 연구 결과는 임금노동시장에 학력의 차별이 존재할 때 저학력자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재택가족기업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재택사업장 관련변수 중 재택사업장이 거주지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는 가정경제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수인 반면,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는 인천이나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가계보다 직접적 기여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총체적 기여분까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에 위치한 가족기업의 순소득이 시골지역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Rowe, Haynes, & Bentley(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두 지역간 월사업소득과 월생활비를 비교한 결과, 서울지역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591만 9천원으로 인천·경기지역 거주자의 사업소득 380만 6천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³⁾ 이는 비서울지역 특히, 지방 거주자들이 더 높은 소득 창출을 위해 서울로 이주하는 현실을 설명해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월생활비의 경우도, 서울지역 거주자가 248만 2천원으로, 인천·경기지역 거주자의 172만 8천원보다 높다는⁴⁾ 사실은 비록 서울지역보다는 적은 소득을 창출한다 하더라도 지방에 거주하면서 소득 창출 방안이 마련

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이주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과 지출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수준이라면 자신의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서울과 인천·경기지역만을 비교하고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서울과 비서울, 대도시와 군부지역, 도시와 농촌에 소재하는 재택가족기업의 소득까지도 비교하여 논의할 필요가 제기된다.

가정영역변수 중 가족원수는 직접적 기여분과 총체적 기여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가족기업에 있어서 가족원은 비록 상시 투입되는 노동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이 바쁘거나 급하게 인력이 요구될 때 투입될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원수가 많으면 인건비 등의 지출의 감소와 순이익의 증가로 이어져 사업소득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 소규모 가족기업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용현주(1998)의 연구결과와는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간접적 기여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어린 자녀가 있는 재택가족기업 경영자는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6세 이하 자녀유무 변수가 직접적기여분이나 총체적 기여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어린자녀가 있다고 해서 재택가족기업의 사업소득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재택가족기업을 경영하는 가계의 경우 어린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직업노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간사용의 융통성으로 인해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시간을 늘려 가정경제에 기여분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취업노동시장에서 노동단절을 경험하는 일반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재택가족기업이 자녀를 돌보면서도 소득창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친화적 노동형태라고 볼 수 있다.

기업영역변수를 살펴보면, 서비스업(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에 비해 도소매업·제조업에 종사하는 가계가 더 많은 직접적 기여분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업에 비해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가계가 더 많은 직접적 기여분과 총체적 기여분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투자비용은 직접적 기여분이나 총체적 기여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간접적 기여분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쳐 매우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재택가족기업의 간접적 기여분을 도출한 연구는 물론 재택가족기업경영자의 시간사용에 대한 선행연구조차 전무한 실정이라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거나 반박할만한 이론적 근거는 없다. 다만,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부동산비용이 창업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日本勞動研究機構, 1995; 박명희·박미혜, 1997에서 재인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재택가족기업의 경우 주거지를 근간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유급의 비가족종사자를 많이 고용하게

3) 두 집단의 t검증 결과 t값이 2.044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4) 두 집단의 t검증 결과 t값이 2.546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나 장시간 노동하도록 함으로써 인건비의 지출이 높아지고 자연적으로 경영자는 기업경영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줄여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재택사업장이 주거지와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점포 관련 부동산비용이 증대되기는 하겠지만, 재택사업장이 주거지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는 가정경제적 기여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투자비용 중 인건비관련 비용이 늘어나 경영자의 간접적 기여분이 증대될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종사자수도 많아지면 직접적 기여분과 총체적 기여분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Rowe, Haynes, & Bentley(1993), Heck & Walker(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노동참여자 구성유형은 본인 혼자 재택가족기업에 참여하는 유형보다는 본인+타인 유형의 경제적 기여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비가족원의 종업원을 고용할 확률이 클 것으로 추측되어, 사업체의 규모와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인+가족의 유형이 간접적 기여분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원 중 1인이 기업경영에 참여할 때 다른 가족원이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가족이 기업경영에 동시에 참

<표 4> 재택가족기업의 가정경제 기여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 = 193)

독립 변수	직접적 기여분		간접적 기여분		총체적 기여분	
	B	β	B	β	B	β
인구통계학적변수						
경영자성별(남자)						
여자	-.375	-.222**	230054.199	.480***	-.266	-.173*
경영자연령	-9.474E-03	-.109	-448.232	-.018	-1.014E-02	-.127
교육수준(고졸)						
중졸이하	-4.344E-02	-.018	12473.958	.019	-1.930E-03	-.001
전문대졸이상	.160	.092	35544.849	.072	.171	.107
재택사업장관련변수						
거주지역(인천·경기)						
서울	.286	.180*	9947.776	.022	.264	.182*
재택사업장유형(미분리)						
주거지와 사업장 분리	7.201E-02	.045	37159.884	.062	6.766E-02	.047
가정경영관련변수						
가족원수	.143	.143*	7955.474	.028	.138	.151*
6세이하자녀유무(없음)						
있음	2.818E-02	.014	78444.773	.135+	4.672E-02	.025
가족기능성	1.508E-02	.052	-1423.321	-.017	1.132E-02	.042
기업경영관련변수						
산업유형(서비스업)						
도소매·제조업	.235	.147+	-51443.280	-.113	.201	.138
음식점업	.436	.184*	-13309.641	-.020	.403	.186*
초기투자비용	1.514E-05	.078	9.759	.178**	1.863E-05	.105
사업지속연수	4.473E-03	.039	181.479	.006	5.622E-03	.053
종사자수	.102	.206*	-4188.175	-.030	9.362E-02	.208*
노동참여자기구성유형(본인혼자)						
본인+가족	.230	.144	70268.037	.155+	.206	.141
본인+타인	.442	.208*	27147.953	.045	.399	.206*
본인+가족+타인	.298	.081	-33010.826	-.032	.244	.072
주당노동시간	2.676E-03	.081	-2117.010	-.225**	1.570E-03	.052
주관적성공도	6.290E-02	.127+	15650.028	.111+	6.246E-02	.138*
상호작용관련변수						
상호작용갈등	1.282E-02	.059	3808.505	.061	1.107E-02	.055
상 수	13.297		123331.447		13.598	
F 값	3.787***		4.928***		3.584***	
R ²	0.316		0.375		0.304	

+ p<.10, * p<.05, ** p<.01, *** p<.001

* ()속의 변수가 기준집단임

여하기 때문에, 다른 한 가족원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만큼 기업경영 참여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정서적으로 이해와 지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eck & Walker(1993)는 노동시간은 소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 기여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주당노동시간은 간접적 기여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에 참여하는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들어 가사노동가치로 측정되는 간접적 기여분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사업경영에 대한 주관적 성공도는 직접적 기여분과 간접적 기여분에 약간씩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관적 성공도가 높을수록 총체적 기여분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영역과 가정영역간의 상호작용 갈등정도는 가정경제적 기여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재택가족기업의 가정경제 기여도 분석은 재택가족기업 경영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이 가정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화폐소득 창출을 통한 직접적 기여분과 가사노동의 병행으로 인한 간접적 기여분을 산정하여, 총체적 가정경제적 기여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직접적 기여분, 간접적 기여분, 그리고 총체적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가정경제에의 직접적 기여분, 간접적 기여분, 총체적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경영자의 경우, 인천·경기 거주자보다는 서울 거주자의 경우,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경우,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본인+타인의 노동참여자 구성유형일 경우, 그리고 주관적 성공도가 높을수록 직접적 기여분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적 기여분에는 경영자가 여성인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클수록, 본인+가족이 참여하는 유형이 정적인 영향력을, 주당노동시간이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적 기여분은 남성경영자인 경우,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경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노동참여자 구성유형은 본인 혼자 참여할 때보다는 본인+타인의 유형이, 주관적 성공도가 높을수록 총체적 경제적 기여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1차적 책임을 지는 여성의 경우, 직접적 소득창출액은 남성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간접적 소득창출액은 남성의 약 2.5배로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축소하는 노동형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유보임금을 높여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인데 반해, 재택가족기업 경영자의 경우 간접적 기여

분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결과는 재택가족기업이 시간사용의 융통성으로 인해 자녀 양육과 직업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친화적인 노동형태임을 입증하였다.

재택가족기업의 가정경제 기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은 재택가족기업을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예비창업자, 그리고 관련 정책입안자들에게 경제적 기여분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접수 일 : 2004년 05월 03일
- 심사 일 : 2004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7월 24일

【참 고 문 헌】

김지희(1999). 가족기업가정에 관한 연구-이론 및 실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미간행

박명희·박미혜(1997). 재택근무의 고찰과 가정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13.

용현주(1998). 1998년도 한국의 소규모 기업경영실태분석, 「한국의 소규모기업」. 서울:국은경제연구소.

이수진·이기영(2001).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가정 및 직장생활에 관한 연구 직장 근무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3), 47-66.

정영금(1999). 소규모 가족기업의 경영실태진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21-135.

Aldrich, H. & Weiss, J.(1981). Differentia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Capitalist Class : Work force size and income differen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279-290.

Danes, S. M., Zucker, V., Kean, R. & Arbutnot, J.(1999). Predictors of family business tension and goal achievement. *Family Business Review*, 12(3), 241-252.

Haynes, G. W., Walker, R., Rowe, B. R. & Hong, G. S.(1999). The intermingling of business and family finances in family-owned Business. *Family Business Review*, 12(3), 225-239.

Heck, R. K. Z. & Walker, R(1993). Family-Owned Home Businesses : Their Employees and Unpaid Helpers. *Family Business Review*, 4(4), 397-415.

Heck, R. K. Z.(1992). The effects of children on the major dimensions of home-based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 315-346.

Heck, R. K. Z. & Stafford, K.(1999). Reconceptualizing business performance theory within the family business

- context: Helping high growth firms remain competitive in global markets. Paper presented at the 1999 Babson College-Kauffman Foundation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The Darla Moore School of Business at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harleston, South Carolina, May 13-15
- Heck, R. K. Z., Stafford, K., Winter, M. & Hennon, C. B.(1993). Home-based Business and Family Outcomes. *Th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9, 352-356.
- Heck, R. K. Z., Walker, R. & Furry, M. M.(1995). *The Workers at Work at Home*. In Owen, A. J., Heck, R. K. Z. & Rowe, B. R.(eds.). Home-Based Employment and Family Life, Westport, CT : Greenwood Publishing. 41-74.
- Heck, R. K. Z., Winter, M. & Stafford, K.(1992). Managing work and family in home-based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 187-212.
- Loscoco, K. A., Robinson, J., Hall, R. H. & Allen, J. K.(1991). Gender and Small Business Success : An Inquiry into Women's Relative Disadvantage. *Social Forces*, 70(1), 65-85.
- Masuo, D. M., Fong, G., Yanagilda, J. & Cabal, C.(1999). Factors associated with business and family success : A Comparison of single manager and dual manager family business householders. Manuscript under review for Special Issue of *Family Business Review*.
- Pratt, J. H.(1993). *Myth and Realities of Working at Home : Characteristics of Home-Based Business Owner and Telecommuters*, Washington, D.C.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Rowe, B. R., Haynes, G. W. & Bentley, M. T.(1993). Economic Outcomes in Family-Owned Home-Based Business, *Family Business Review*, 6(4), 383-396.
- Smilkstein, G.(1978). The Family APGAR: A proposal for a family function test and its use by physicians. *Journal of Family Practice*, 6(6), 1231-1239.
- Sung, J. & Stafford, K.(1995). The effect of managerial behavior on household satisfaction. Family Economic and Resource Management Biennial: *Journal of the FERM, Division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1, 95-96.
- Walker, R. & Heck, R. K. Z.(1995). *The Hidden Hum of the Home-Based Business*. In Owen, A. J., Heck, R. K. Z. & Rowe, B. R.(eds.). Home-Based Employment and Family Life, Westport, CT : Greenwood Publishing. 75-106.